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120개국이 기독교 50% 이상 영·불·호주·우루과이 절반 이하

전 세계 다수 국가는 여전히 기독교가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기독교 다수 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10년간 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일부 국가는 더 이상 기독교 다수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수백만 명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떠난 것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조사 대상 201개 국가 및 지역 중 120개국이 기독교 다수 국가로 분류됐다. 이는 2010년에 비해 4개국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무종교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 국가는 10개국으로, 2010년보다 3개국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 다수 국가는 2010년 62%에서 2020년 60%로 줄었고, 무종교 다수 국가는 같은 기간 3%에서 5%로 늘었다.

영국, 호주, 프랑스, 우루과이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밑돌며 기독교 다수 지위를 상실했다. 2020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 비율은 영국 49%, 호주 47%, 프랑스 46%, 우루과이 44%로 나타났다. 이 중 우루과이는 무종교 인구가 전체의 52%를 차지하면서 기독교를 추월했고, 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다수 국가가 아닌 나라로 바뀌었다.

영국, 호주, 프랑스는 특정 종교가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다수 종교가 없는 국가'가 됐다. 이들 국가에서 무종교 인구는 기독교 다음으로 큰 집단으로, 규모가 기독교 인구와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네덜란드(2020년 무종교 54%)와 뉴질랜드(51%)는 2010년 이후 무종교 인구가 과반을 넘어서며 '무종교 다수 국가'로 새롭게 분류됐다. 중국(90%), 북한(73%), 체코(73%), 홍콩(71%), 베트남(68%), 마카오(68%), 일본(57%) 등은 이미 2010년부터 무종교 다수 국가 지위를 유지해왔다.

반면, 같은 기간 무슬림 다수 국가(53개국), 불교 다수 국가(7개국), 힌두교 다수 국가(2개국), 유대교 다수 국가(1개국), 기타 종교 다수 국가(1개국)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종교 다수가 없는 국가는 6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었는데, 한국, 싱가포르,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기독교의 세계적 분포 특성에도 주목했다. 2020년 기준 기독교인은 전 세계 인구의 29%에 불과했지만, 전체 조사 대상 국가의 60%에서 다수 종교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크로네시아 같은 남태평양 소국부터 미국 같은 초대형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국가에서 기독교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인도와 중국처럼 인구 10억 명을 넘는 대국에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 1.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누구나 좋아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의 가족 70명이 흉년에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명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다 복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 2. 꿈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십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일곱 살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추수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베어 놓은 단과 형들이 베어 묶어 놓은 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별을 향하여 해, 달 그리고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평생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 3.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 주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감독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



다. 진 팀의 감독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감독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감독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인생을 비판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알고 열심히 종살이하였습니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요셉은 감옥살이 할 때도 감옥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였던지 감옥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요셉을 좋아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이렇게 충실한 사람을 사람들은 왜 싫어하겠습니까?

### 4. 일을 즐기는 사람

사람들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맡은 일을 취미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종살이를 즐기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주고, 주인 재산이 늘어나

는 것을 즐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원수를 갚고 말겠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한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

다. 뉴욕 아스토리아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만난 인상깊은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72살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교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장로님은 매주 월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80세입니다. 만 8년을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란 고백하였습니다.

이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즐겁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강문호 목사-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T. 714.872.9377